

Contents

목 차

제 1장 : 왜 이라크에 파병하는가?

제 1절 : 새로운 역사를 맞는 우리국군	9
제 2절 : 추가파병 부대의 임무와 성격	10
제 3절 : 이라크 추가 파병의 당위성	11
제 4절 : 세계속의 한국군으로서의 위상	16
제 5절 : 우리군의 자세	19

제 2장 : 이슬람 문화 · 이라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제 1절 : 이슬람의 의미	23
제 2절 : 이슬람교	23
제 3절 : 이슬람 문화	30
제 4절 : 이라크 역사	40
제 5절 : 이라크 국가개황	44
제 6절 : 대한민국도 관계	55
제 7절 : 이라크인의 관습	57
제 8절 : 이라크 종교 · 종파 · 민족	80
제 9절 : 전후 이라크 정치동향	89
제 10절 : 전후 이라크 경제재건 동향	104

제 3장 : 이라크의 작전환경은 어떠한가?

제 1절 : 탁발주 기관	111
제 2절 : 자연적 환경	113
제 3절 : 주요 기반시설 상태	137
제 4절 : 보건 의료 환경	162
제 5절 : 교육기관 환경	170
제 6절 : 인종적 환경	178
제 7절 : 동맹국 임무별 작전개념	194

제 8절
제 9절

제 1절
제 2절
제 3절
제 4절
제 5절
제 6절
제 7절
제 8절
제 9절
제 10

제 1절
제 2절
제 3절
제 4절
제 5절
제 6절
제 7절
제 8절
제 9절
제 10
제 11
제 12

제 8절	이라크내 치안상황과 지형세력	224
제 9절	동맹군 및 헌곡군에 대한 인식	270

제 4장 : 작전 수행간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는가?

제 1절	일반적 질감지침	283
제 2절	기후에 따른 유의사항	287
제 3절	유해 동식물 관련 유의사항	304
제 4절	생활관습 관련 유의사항	309
제 5절	종교적 유의사항	323
제 6절	각종 테러대비 절차	325
제 7절	각종 질병징후 및 응급처치 요령	340
제 8절	외국군과의 생활 수칙	359
제 9절	공보상황 발생시 유의사항	360
제 10절	보안 준수사항	362

부 록

제 1절	이슬람력	367
제 2절	다국적군 계급체계	372
제 3절	이라크 관련 주요인물	397
제 4절	후세인잔당 수배자명단	402
제 5절	급조 폭발물	403
제 6절	저항군 보유 주요장비	413
제 7절	구 이라크군 주요 지뢰	416
제 8절	키르쿠크지역 문화유산	437
제 9절	도량형 환산법	439
제 10절	온도 환산법	441
제 11절	국제전화번호표	442
제 12절	주요 숙박시설	443

왜 이라크에 파병하는가?

1. 새로운 역사를 맞는 우리국군

가. 지난해 우리 군은 빈틈없는 국방태세 유지로 국가안보와 번영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작년 말 국가적·국민적 대관심사로 떠오른 이라크에 대한 국군의 추가파병이 결정됨으로써 세계 평화유지를 위한 거보를 내딛는 뜻깊은 계기를 마련하였음

나. 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일구어 낸 결단이며 국군의 미래를 새롭게 여는 역사적인 전기가 될 것임

다. 그동안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으나, 국민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들 모두 국익과 파병장병의 안전을 염려하는 우리 국민의 우국충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음

라. 이제 국민의 관심과 시선은 우리 군에게 집중되고 있는 바, 우리 군은 어려운 상황속에서 국가가 결정한 파병임무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며 우리 군에게 있어 갑신년 한해는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여는 매우 뜻 깊은 해가 될 것임

2. 추가 파병부대의 임무와 성격

가. 추가파병 결정과정

작년 12월 17일 대통령 주재 안보관계 장관회의와 이후 실시된 대미(對美) 군사 실무회의,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한 국민여론, 3회에 걸친 현지조사 결과, 우리 군의 특성과 역량, 그리고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파병안을 결정

나. 정부의 파병안

- (1) 추가파병 규모는 3,000명 이내로 구성함.

(서회 제마부대 포함시 3,700명 수준)

- (2) 파병부대는 효율적인 임무수행과 부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일정 지역을 담당하며, 치안유지는 원칙적으로 이라크 군경이 맡도록 지원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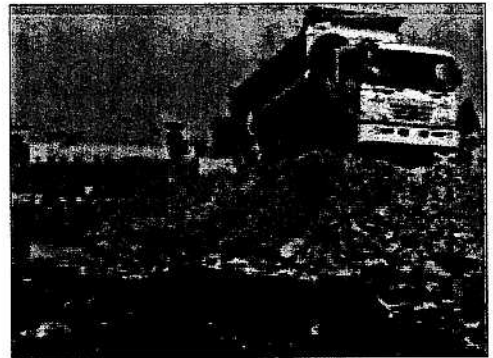
- (3) 파병지역은 부대의 안전성, 파병부대의 능력, 전후복구 참여 가능성, 주둔여건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지역을 담당
- (4) 파병부대 편성개념은 재건지원 및 민사작전부대, 지역 안전 및 자체 경계부대, 그리고 이를 지휘하고 지원할 사령부 및 직할부대로 구성되며 감소 편성된 사단규모로 결정
- (5) 파병시기는 국회에서 파병안이 통과되고 나서 부대편성 및 인원선발, 임무수행 및 현지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파병전 교육훈련, 파병부대의 물자·장비 확보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04. 4월말로 결정

- (6) 정부차원의 외교적 조치와 연계, 아랍권과의 우호여건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군사외교활동을 추진하면서, '03년~'07년까지 이라크 전후복구사업을 위해 원조되는 2억6천만불을 우리 군이 파병되는 지역과 기간내에 집중적으로 투자·운영되도록 협조

(美) 군사
결과, 우
결정

다. 파병안을 통해 본 파병부대 성격 및 임무

- (1) 우리 정부의 파병안에 따르면 추가파병 부대는 파병 목적인 이라크의 평화 정착과 신속한 전후재건을 지원하는 "평화·재건 지원군"의 성격으로 일정한 책임지역을 담당
- (2) 과거 동티모르에 파병된 상륙수부대와 동일하게 이라크 군(軍)·경(警)·행정조직이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고 경제재건 및 정부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



이라크 재건 지원활동



부대, 그리
단규모로
구수행 및
! 등에 소

3. 이라크 추가 파병의 당위성

가. 헌법과 군인복무규율에 따른 국제평화유지 기여차원

- (1) 이번 추가파병은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한다는 헌법정신과 군인복무규율에 따른 결정임
- (2) 우리 헌법(제 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여 국제평화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며 군인복무규율(제 4조 2항)은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
- (3)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거 우리 정부는 파병을 결정함으로써 국제평화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국가의 의지를 천명

나. 유엔의 결의에 따른 다국적군으로 파병

- (1) 현재 시점은 이라크 전쟁기간이 아니라 전후 처리기간이기 때문에 한국군의 추가파병은 미국을 도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이라크 재건과 민주국가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2) 이렇게 이라크에 추가 파병하는 것이 세계와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것은 지난 2003년 10월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對 이라크 다국적군 파병 및 재건에 관한 결의안"에도 부합된 것임.
- (3) 이러한 유엔의 결의문에 기초하여 이라크에는 미국군과 영국군을 포함하여 35개국 16만 여명의 다국적군이 파병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이중 미군을 포함하여 1천명 이상 파병한 국가는 영국, 이태리, 폴란드, 우크라이나, 네덜란드, 스페인 등 7개국이며, 일본, 싱가포르, 파라과이 등 3개국에서 추가파병을 준비하고 있음.
- (4) 일부에서는 제2의 베트남전과 같이 수렁에 빠진 미국을 돕기 위해 나섰다가 우리나라마저 피해를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 첫째, 베트남전에는 정규전과 함께 게릴라전이 한창이던 시기에 우리 군이 파병됐으나 현재 이라크는 '03년 5월 2일부로 종전이 선언된 상황에서 전후 재건과정에 치안유지를 위한 안정군(stabilizing force)의 지위로 파병되는 것이며 둘째, 베트남전은 유엔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파병요청을 우리 정부가 수용해 이뤄진 것이었으나 이라크전 파병은 미국의 요청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다국적군 형식으로 파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다.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의 지원요청

- (1) 아랍권은 조속한 이라크의 합법적 정부수립을 위해 다국적군에 의한 치안 및 질서확보 역할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라크 통치위원회(IGC)"도 안정과 질서 및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한국의 지원을 요청해 왔음.

- (2) 파병 반대논리 중 하나가 미국의 명분없는 전쟁에 휘말려 아랍권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나, 무엇보다도 후세인은 아랍권의 패권을 추구하다가 이란과 전쟁을 벌이고 이슬람교도인 쿠르드족과 동족들을 살인가스로 몰살시켰으며, 쿠웨이트를 침략하고 사우디를 위협하였던 인물로 전 아랍권에서 후세인의 몰락을 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라크 내에서도 반미는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대부분의 이라크 국민들도 후세인이 제거되고 체포된 것에 대해 내심 환영하고 있음
- (3) 따라서 우리의 추가파병 부대의 임무가 주로 민생치안을 확보하고 국가재건 작업을 지원하는 등 현지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에 주안을 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파병이 국제사회 및 아랍권의 환영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 국한하더라도 추가 파병의 명분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음.

라. 이라크 재건과 주민에 대한 인도적 구호 필요성

- (1) 이라크전의 작전명 "이라크 자유작전(OIF : Operation Iraq Freedom)"에서도 알 수 있듯이 후세인의 폭정과 독재로부터 이라크 국민들을 해방시키고 아랍권의 패권 장악의도와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 하에 수행되었음
- (2) '68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79년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20년 이상을 독재자로 공포와 철권정치로 일관하여 온 후세인은 '88년 2월 이라크 북부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의 반란을 진압한다는 명목 하에 사린과 청산가리 가스를 살포해 어린 생명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5,000여명이 넘는 무고한 양민을 살상했으며, 같은 해 9월까지 5만 여명 이상을 학살하여 지금까지 이라크 전역에 270여개의 집단 매장지가 발견됨으로써 30만명에 이르는 주민이 학살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3) 또한 국외적으로 '80년 9월 이란을 침공했고 '83년과 '85년에는 겨자가스, 신경작용제 등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여 이란군 2만명을 살상하였음. '90년 8월에는 자신의 지배체제 장기화 및 석유자원의 전략화를 위해 국제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쿠웨이트를 침공했으며, 퇴각할 때에는 700여개가 넘는 유정에 불을 질러 주변지역을 오염시키는 등 자연환경 파괴행위를 자행했으며, 전 세계적인 테러를 지원하던 인물임

(4) 특히 후세인은 대중 심리조작에 능하여 아랍국가의 민족주의 지도자로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면서 집권 20여년 동안 막대한 석유판매수입을 빼돌려 약 8조 4천억원(70억 달러)의 개인재산을 축적하여 세계 38위의 갑부 서열에 올랐음. 따라서 이라크전은 공포정치의 독재자로부터 이라크 국민을 해방시키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테러지원의 핵심적 인물인 후세인을 제거하였다는 차원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을 것임.



후세인 사진에 총을 쏘는 이라크인

(5) 후세인 통치와 이라크 전쟁을 통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이라크 국민들임. 이라크 국민은 실업률이 60%를 상회하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 테러 및 민생범죄 속에서 국제적 지원이 없이는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임.

(6) 이라크 국민들은 후세인의 잔혹한 압정과 지독한 가난에서 해방되어 과도정부가 빨리 안정을 찾아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정부수립과 함께 경제 회복을 바라고 있음. 그들은 일어서겠다는 뜻과 의지는 있지만 외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처지에 놓여 있음.

(7) 이처럼 어려울 때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의료활동과 재건지원, 그리고 치안과 질서회복을 진정으로 도와준다면 그들은 한국인의 지원과 은혜를 가슴 깊이 간직하게 될 것임.

마. 우리의 대외적 위상제고 및 국익증진에 기여

(1) 세계경제 12위 국가이자 OECD회원국으로서 10여 차례의 PKO활동에도 불구하고 국제안보 부담 추세에는 미진한 바, 한국의 국제사회 위상에 걸맞는 기여가 필요

(2) 작년 10월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라크 결의안"에 따라 이라크통치위원회에서는 금년도에 신정부를 출범시킬 예정이고 이후 각국에 지불하여야 할 미수금을 상환하게 되는데, 이때 대규모 파병을 하면 할수록 미수금 반환협상에서 조기에 상환



3인

서그정

국민들임,
적 혼란과
회복할 수

정부가 빨
있음. 그
디에 놓여

리고 치안
깊이 간직

불구하고
필요

위원회에
수금을 상
기에 상환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현재 현대건설에서 이라크로부터 상환을 받아야할 미수금만도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데 이것만이라도 조기에 상환 받을 수 있다면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이 희생할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임.

- (3) 또한 추가파병으로 파생되는 서비스 및 물자 등의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으며, 향후 약 10여 년에 걸쳐 최소 1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에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됨. 이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에서는 향후 10년간 이라크를 포함한 중동에서 최대 1천억 달러 규모의 플랜트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정유업계에서는 유전개발과 정유시설 복구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 또한 자동차업계에서는 추가파병을 계기로 중동지역이 잠재시장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음.
- (4) 특히 중동 석유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75%수준인 한국경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세계 2위의 석유매장국 이라크의 전후복구사업 참여 여부는 우리의 안정적 석유수급에 직·간접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임.
- (5) 이와 같이 이라크 추가파병부대가 성공적으로 군사적 활동을 수행할 경우 2008년까지 수출 및 해외건설이 102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라크 파병으로 한·미 동맹이 강화되어 주한미군이 지속적으로 주둔할 경우 해외투자자들이 한국에 보다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1.2% 성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치를 '03. 11월 27일 전국 경제인연합회에서 발표한 바 있음.
- (6) 추가적으로 파병부대의 성공적 임무완수는 이라크 내에서 정부 및 민간기업의 활동 여건과 안전을 보장하여 주는 부가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한·미 동맹 강화에 기여

(1) 아래 문구는 워싱턴 "한국전 기념공원"에 세워진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새겨진 추모의 글임

“우리나라는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려는 요청에 응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기린다.”

(2) 이 비문이 말해 주듯이 한·미 동맹관계는 6·25전쟁시 함께 피 흘려 싸운 혈맹의 관계로 출발하여 전후 50여년간 우리 땅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고 있는 우리의 친구이자 전우, 우방으로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3) 6·25전쟁 당시 미국은 우리나라를 지원하기 위해 사상자 36,940명, 부상자 92,134명, 실종 3,737명, 포로 4,439명 등 총 137,250명이라는 희생을 치렀음. 지금도 3만 7천여 명의 미군이 한국의 방위와 동북아 평화 유지를 위해 주둔하고 있고, 유사시 대북 억제 및 방위를 위해 한반도 주둔 전력은 물론 미 태평양사령부 및 본토에 막대한 전력을 대기시켜 놓고 있음.

(3) 이처럼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이 대(對) 이라크전 이후 평화정책 및 신속한 재건을 위해 우리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 세계 평화와 자유를 함께 지켜 나간다는 공동의 정신을 가지고 한미 동맹정신을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때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함.

(4) 특히 이라크 추가파병은 유엔을 정점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의에 동참하는 것이며, 이라크 국민들이 가장 절실히 바라는 이라크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임.

4. 세계속의 한국군으로서의 위상

가. 1945년 8월15일 광복 직후의 국방경비대를 모체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창설된 국군은 1964년 베트남 전쟁에 의료진 130명과 태권도 교관 10명을 보낸 것을 시초로 하여 10회에 걸쳐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동참하여 왔음.

국가(지역)	임무	규모
걸프전	의료지원	의료 154명, 수송 150명
소말리아	도로보수, 관개시설 재건, 각종 대민지원	공병 250명
앙골라	교량·도로보수, 대민지원	공병 198명
서부사하라	의료지원	의료 20명
동티모르	방위, 법질서 유지, 인도적 구호	보병·공병 432명
인도·파키스탄	카슈미르지역 정전감시	군읍서버 9명
그루지아	휴전협정 이행 감시	군읍서버 3명
아프가니스탄	대테러전 수행	의료·공병·수송 487명
서키프로스	정전감시	사령관 1명
이라크	건설·의료 치안유지	의료·공병 675명

나. 우리나라의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대단히 성공적이었으며, 이는 무엇보다도 우리 장병들의 가슴속에 자리 잡고있는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과 국제무대에서 우리 조국의 위상을 생각하며 악 기상과 열악한 근무여건 하에서도 스스로를 이겨내며 묵묵히 임무를 완수했던 파병장병들의 애국 어린 충정이 있었기 때문임.

다. 일례로 동티모르에 파병된 상륙수 부대는 '99년 10월부터 약 4년간 UN평화유지군 참여 국가중 가장 모범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00년 4월에는 로스팔로스 중심가가 "친구 한국의 거리(루이 말록 꼬레아)"라 명명되었고 주민들로부터 "다국적군의 왕"으로 불리워지는 등 머나먼 이국 땅에서 한국군의 위상을 드높였음. 이렇게 동티모르 상륙수 부대는 고가의 추가적인 특수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의무·공병부대 보다도 전투부대가 편제장비로써 효율성 높은 임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함께 국위선양에도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남기고 작년 10월 완전 철수하였음.

라. 또한 현재 이라크에 파병되어 활동중인 서희·제마부대도 현지인에 대한 의료지원 등 인도주의적 활동으로 파병 33개국 중 가장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한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시리아 외에도 한국군이 활동중인 곳 어디에서나 "꼬레, 꼬레(코리아, 코리아)"를 외치며 환영하는 주민들의 모습과 지금까지 서희·제마부대에 대한 현지인들의 적대적 행위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에서 우리 한국군의 활약상을 짐작할 수 있음.

마. 또한 제마부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한달 전에 예약을 해야 하고, 3~4일을 걸거나 바그다드에서부터 차량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으러 올 정도로 "한국군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음. 제마병원의 우수한 진료능력으로 인해 나시리아 종합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제마병원을 찾고 있음.

바. 실제로 2003년 11월 초 가스 폭발로 인해 전신 2~3도 화상을 입은 35세 여자 환자(사미라·초등교사)는 제마병원에 입원하여 2번의 수술과 정성어린 간호를 받고 생명을 구했고 환자 남편(하이다르·변호사)과 가족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제마부대에 감사 서신을 전해와 한국군의 우수성을 대내 외에 과시한 바 있음.

사. 동티모르 상륙수부대와 이라크에서 활동중인 서희·제마부대는 주민들의 마음속을 파고드는 정성어린 민사작전과 지원으로 현지인들에게 "다국적군의 왕"이라 칭송을 받을 정도로 훌륭히 임무를 수행하였던 사실에서 모든 국민은 이라크 추가파병 부대가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완벽하게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을 것임.

5. 우

가.

나.

다.

라.

5. 우리 군의 자세

가. 우리가 이라크전을 통하여 주목하여야 하는 것은 미국민들과 미군 장병들의 정신일 것임. 아이러니한 것은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도 전쟁 중에도, 그리고 승전과 종전을 선포하고 후세인이 생포된 후에도 이라크 전쟁에 대한 찬반양론이 가장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사실임.

나. 그러나 미국은 세계평화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개전을 결심하고 전쟁수행을 위한 전투병을 모집하기 위해 동원령을 발령하자 미국 젊은이들은 자발적으로 참전을 결심하였으며, 이렇게 동원에 응소한 젊은이들의 부모형제들과 미국민 모두는 자신의 자식과 젊은이들이 국가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게 된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음.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던 '03. 3월부터 12월까지 전투에 참가한 미군 중 동원병력이 총 21만 여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

다. 이는 부시 대통령이 '03. 3월 20일 이라크전 개전연설을 통하여 "이라크 국민을 해방하고 세계를 심각한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이라크 무장해제를 위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군사 공격에 돌입"하였음을 선언하면서 "사랑하는 이들을 전장으로 떠나보낸 당신(참전 장병여러분)들의 희생에 전 미국인은 경의를 표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는 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할 것임.

라. 이렇게 미국민들은 자신의 자식과 형제들이 국가를 위해 참전했다는 사실을 가장 명예스럽게 생각하고, 그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영원히 기리고 있음.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개인주의적인 미국이지만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이익을 포기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가장 명예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민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임.

마.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는 전장은 항상 불확실하고 비합리적이며 비이성적인 상황의 지속임. 예를 들어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항력이지만 진지를 사수하라는 명령이 하달될 수도 있으며, 최종적인 작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을 유인하거나 기만하기 위한 목적 하에 부하를 사지로 몰아넣게 되는 지시를 할 수도 있음.

바. 이런 상황에서 비록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더라도 상관의 명령에 기꺼이 복종하여야 하는 것이 군인임. 왜냐하면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은 개인의 이득이나 생명의 보존을 떠나 부대와 군, 나아가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정신자세가 요구되어지기 때문임.

사. 따라서 높아진 국가위상에 걸맞게 세계평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이익을 위해 군 최고 통수권자이신 대통령과 정부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해 지지를 보내야 하겠으며, 이역만리 타국에서 열악한 자연환경을 극복하며 주어진 소임완수에 전력을 다하게 될 파병 장병 여러분들이 주어진 기간동안 국위선양과 국제평화유지 사도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고 무사히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함.

Sinjar

Al Qa'im

Al Hidid

RA

이